

연구논문

조르조 아감벤 사상의 행정학적 의의: 통치와 공직의 고고학*

이 문 수**

- I. 머리말
- II. 호모 사케르 시리즈와 그것이 행정에 던지는 질문들
- III. 서양 권력의 토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 IV. 공직과 의무에 대한 고고학
- V. 맺음말

〈요약〉

본 연구는 이태리의 철학자인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시리즈에 나타난 통치와 공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행정학자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시도된 것이다. 아감벤은 주권적 권력과 인간의 삶의 형식을 연관 지어 사유한 철학자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주권적 권력보다는 행정적 권력 즉 통치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권력이 서양 세계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지탱시켜온 중심 기둥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아감벤은 오이코노미아(행정) 신학을 기존의 정치신학과 병렬적인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시에 아감벤은 서양에서 사람과 사물의 질서 있는 배치와 관리라는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 개념을 성직자의 직무에 대한 신학적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서 아감벤은 우리의 삶을 제도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규제하는 장치들이 지니는 신학적 기원을 분명하게 들어내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에서 무비판적으로 쓰이는 개념들인 거버넌스, 행정윤리, 의무 등이 그 속에 형이상학적 기초를 갖는다는 아감벤의 주장은 그 자체로 탐구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본 논문이 주된 독해의 대상으로 채택한 저서는 「The Kingdom and Glory」와 「Opus Dei」이다. 이 두 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통치 권력과 공직 개념에 대한 계보학적 연원을 파악하고 그것이 주는 실천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주제어: 조르조 아감벤, 행정신학, 통치, 통치권력, 공직의 고고학]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행정학회와 조직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완성되었습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mslee@cu.ac.kr)

I. 머리말

미셸 푸코와 자크 데리다 사후에 정부 조직에 의한 권력의 행사를 인간성과 자유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현대의 대표적 철학자 가운데 현재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자로 조르조 아감벤을 들 수 있다. 푸코와 데리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아감벤 철학이 현재 인문학, 사회과학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의 책이 번역되는 속도와 그의 철학에 대한 이차적 연구들이 지금도 해외와 국내에서 왕성하게 생산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권력이 우리생활의 구석구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를 연구의 중심에 놓고 있는 행정학계에서 그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물론 소개조차 잘 되고 있는 못한 것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우기 위한 시도로 준비된 것이다.

로마대학에서 1965년 시몬 베유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아감벤은 1966년, 1968년 하이데거의 르 토르(Le Thor) 세미나에 직접 참가하면서 존재자가 아닌 존재에 기초한 그만의 철학을 만들어 나간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아감벤의 학문적 관심은 언어철학, 존재론, 문헌학, 미학 쪽에 쏠려 있었기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학자 가운데 하나이었다. 그가 권력과 그것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1995년에 시작하여 2015년에서야 총 9권의 책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호모 사케르 시리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 호모 사케

1) 시리즈의 순서와 도서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말로 현재까지 총 6권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아감벤의 책들은 먼저 이탈리아로 출판되고 그 후 영어로 번역이 된다. 여기서 영어로 번역된 저서 뒤에 표기된 연도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연도를 가리킨다.

I.1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1995),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2008)

II. 1. State of Exception (2003), 「예외상태」.(2009)

2. Stasis: Civil War as a Political Paradigm (2015), 「내전: 스타시스, 정치의 패러다임」.(2017)

3. The Sacrament of Language: An Archaeology of the Oath (2008), 「언어의 성사」.(2012)

4. The Kingdom and the Glory: For a Theological Genealogy of Economy and Government (2007), 「왕국과 영광: 오이코노미아와 통치의 신학적 계보학을 향하여」.(2016)

5. Opus Dei: An Archeology of Duty (2013)

III.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1998),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문서고와 증인」.(2012)

IV. 1. The Highest Poverty: Monastic Rules and Forms-of-Life (2013)

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삶과 권력에 대한 고고학적(archeological) 탐구이다. 그러나 특별히 행정학자의 주목을 끄는 저작들은 서양 역사에서 출현하는 통치(government)와 공직(office)에 대한 역사적 분석 작업을 진행한 「The Kingdom and Glory」와 「Opus Dei」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책에서 아감벤은 기독교의 성립 이후로 서양세계를 지탱해온 권력의 두 기둥(주권적 권력과 통치 권력) 가운데 오이코노미아에 기초한 통치 권력의 실질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후자의 책에서 아감벤은 통치 권력을 현실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공직과 의무를 성직자들이 행하는 전례에 기초하여 고고학적, 계보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두 저서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아감벤 철학의 행정학적 의미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을 쓰면서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은 어떻게 하면 관념적이고 추상적 철학개념들을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자나 학생들에게 의미의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가였다. 그러나 아무리 독자 친화적으로 글을 쓴다고 하여도 일부에게는 읽기 쉽지 않은 논문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필자가 아직 학문적 덜 성숙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 변명을 한다면 행정학계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나 사태를 좀 더 철학적, 신학적,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올수록 독해나 이해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호모 사케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그의 주장의 핵심 논리를 분명히 한다. 특히 그의 거의 모든 저작에서 발견되는 사태의 발생과 그것의 역사적 전개를 설명하는 논리를 명확하게 들어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한 아감벤의 고고학적 연구가 행정에 던지는 질문들을 검토할 것이다. 세 번째 장은 정치신학이 아닌 행정신학을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서 통치 권력의 계보학을 정립하려는 아감벤의 주장들을 살펴본다.²⁾ 네 번째 장은 공직과 의무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 즉 직무의 효과성과 직무행위자의 윤리적

2. The Use of Bodies (2015)

- 2) 정치신학은 정치권력과 신적 권력 사이의 유사성에 기인하여 오래 전부터 하나의 학문범주로 인정되고 있다. 아감벤은 이에 반하여 서양에서 권력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economic theology”임을 「The Kingdom and Glory」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여기서의 economy를 경제로 보기보다는 행정으로 보기를 주장할 것이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감벤(2011: 1) 스스로 economy를 “신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삶의 ... 내재적 질서”라고 말하면서 통치(government)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에서 서술되듯이 아감벤의 문제의식 자체가 이 세상은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있기 때문에 경제신학보다는 행정신학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성격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주장의 계보학적 연원을 추적하는 아감벤의 시도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설익은 비판을 지양하고 아감벤의 주장들이 지니는 약간은 급진적이며 전복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한다.

II. 호모 사케르 시리즈와 그것이 행정에 던지는 질문들

1. 호모 사케르 시리즈에 대한 전체적 이해

본 연구는 아감벤의 최근의 연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행정 개념의 형이상학적 기초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감벤은 1995년에 시작하여 2015년에 서야 끝이 나는 호모 사케르 시리즈로 우리와 친숙한 이름이 되었다. 호모 사케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권력이 만드는 삶의 형식(form of life)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임은 위에서 말한 바 있다. 아감벤은 영어로는 1998년 출판된 시리즈 첫 번째 책 「Homo Sacer」(1998)에서 “벌거벗은 삶(bare life)”이 “포함적 배제(inclusive exclusion)”를 통해 양산되면서 서양에서 주권적 권력이 탄생하는 계기를 포착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탐구 대상인 「The Kingdom and Glory」와 「Opus Dei」에서 아감벤은 서양의 정치, 행정의 역사에서 통치와 공직 개념이 성립하는데 미친 신학적 사유와 제도, 관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13년 출판된 또 다른 저서인 「The Highest Poverty」에서 아감벤은 (생명 없는 형식으로서의) 규칙과 (형식 없는 존재로서의) 삶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중세의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수도사적 삶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파고들고 있다.

2005년 이후 아감벤의 연구에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사회과학적 개념들의 근원(arche) 설명하는데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 영향을 특별하게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 볼 점은 정치신학을 하나의 학문범주로 정착시킨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에 대한 아감벤의 반응이다. 현재의 주권을 포함한 많은 정치적 개념들은 세속화된(secularized) 신학적 개념이라는 슈미트의 주장에 맞서서 아감벤은 신의 존재와 실천을 둘러싼 신학적 논쟁 속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개념들은 초월적이고 우주론적인 정치적 개념들이 아니라 내재적이며 지상에서의 구체적 통치를 지칭하는 개념들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정치의 진정한 문제, 중심적 신비는 주권이 아니라

통치이다; (정치의 진정한 문제, 중심적 신비는) 신이 아니라 천사이다; 왕이 아니라 장관들이다; 법이 아니라 경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아감벤(2011: 276)은 정치신학이 아닌 행정신학을 주장하는 것이다.

아감벤은 2015년 『The Use of Body』를 출판하면서 20여 년 동안 이어온 호모 사케르 시리즈라는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아감벤(2015: xiii)은 마지막 작업의 서문에서 “호모 사케르 시리즈를 읽고 이해한 사람은 결론은 물론이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작업은 “...결론지을 수 없고 오직 포기될 뿐이다 (그리고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될 것이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는 그의 작업이 어찌 보면 서양철학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그의 작업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아감벤의 작업에 깔려있는 부정적 논리에 기인한다.

서양에서 추상적인 존재론이나 윤리학에서 구체적인 법률이나 정부를 지배하는 장치(apparatus)들은 아감벤이 “presuppositional”이라고 하는 같은 종류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생명, 권력, 언어, 존재 등의 현상들은 두 부분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첫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이 구성되는 기초로 전제되지만 동시에 구성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배제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 구성논리”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긍정적 부분의 구성은 무엇인가 그 긍정적 부분을 구성하는데 꼭 필수적인 것을 배제, 포기, 아니면 죽이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물로서의 소리를 죽이면서(희생시키면서) 언어라는 장치를 획득했고, 일정부류의 사람들(아감벤은 우리는 모두 잠재적으로 이 일정 부류의 사람에 속한다고 말한다)을 법의 외부(예외상태)에 두면서 주권을 형성했으며, 본질적으로는 일이 없는 존재(workless)로서의 인간을 죽이면서 항상 작동 가능한(operativity) 인간으로서 행정인을 만든 것이다.

도시(polis)의 성립은 인간의 삶을 별거벗은 삶(bare life: zoe)과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삶(politically qualified life: bio)으로 나누면서 가능해졌다. 또한 인간은 동물과의 포함적 배제(inclusive exclusion)를 통해 나타나게 되면서 동물이 내는 소리를 잃고 언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등장하는 것이다. 주권은 모든 법이 정지된 아노미 즉 “예외상태”를 선언하면서 폭력에 기초해서 등장하지만 스스로는 모든 법과 질서의 수호자이며 교두보로 자처한다. 부동의 동자로서의 신은 신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아들 신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신은 비어있는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실천(praxis)으로서의 행정은 본질(ousia)로서의 정치를 전제로 하지만 (신)자유주의에서의 시장과 행정적 통치는 정치를 공허한 영광(glorry)의 역할로 전락시킨다. 중세에 공직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의 지상에서의 구원행위라는 의례나 의식을 주관하는 자들이 필수적이었으며 이들의 행위는 그들의 도덕적 특성과 의도와 관계없이 항상 효과적인 행위가 되었다.

다시 요약해서 말한다면, 아감벤이 말하는 장치의 작동논리는 항상 양극적(bipolar)이라는 특징을 지니면서 한 극이 한 극 배제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배제된 극은 존재를 드러낸 극의 가능성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쪽 극은 다른 극과의 관련 아래에서만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어느 하나의 극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상과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도 없고 현실을 변혁시킬 수도 없다.

아감벤이 이와 같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논리를 통해 강조하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장치들이 우리들의 삶의 형식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현실의 인간을 본래적 인간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아감벤이 보는 본래적 인간이란 특별히 어떤 일을 해야만 인간성이 드러나는 존재가 아닌 자체로 일이 없는(workless)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에 노출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점차 수많은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장치에 구속되면서 점차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존재로 변한다. 행정의 아포리아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행정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감벤이 행정에 던지는 질문은 보다 심층적 깊이를 가지고 있다. 아감벤이 법의 폭력적 기원을 말하면서도 법을 폐기시키지 않고 아이들의 장남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터 벤야민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처럼 행정 역시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본래적 자유를 추구하는 아감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작동하는 모든 장치들을 작동불능(inoprativity)의 상태로 만들기를 희망한다.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는 허만 멜빌의 소설 「필경사 바틀비」에서 바틀비가 하는 말 “I would prefer not to”를 우리 모두에게 주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감벤은 현상을 일거에 뒤바꾸는 폭력적 혁명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또 다른 배제적 포함의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메시아니즘은 “약한 메시아니즘(weak messianism)”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조그만 행동의 변화가 우리를 나누고, 차별하고, 비인간화시켰던 서양의 권력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감벤

은 발터 벤야민의 메시아니즘을 받아들인다. 벤야민(2003)은 그의 “On the Concept of History”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예외상태는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 상태이다.” 그러면서 베야민은 “우리의 과업은 진정한 예외상태를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아감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일 것이다.

2. 아감벤의 연구가 행정에 던지는 질문들

우리는 흔히 행정, 행정권력이라는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만들어지는 담론, 제도, 실천들의 일부분으로 이해하곤 한다. 행정 또는 행정권력을 보는 이와 같은 관점을 우리는 역사-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은 왜 행정이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형태로 발현하는가라는 질문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존재하는 행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전자의 문제의식은 역사적 계보학(genealogy)을 기초로 행정을 파악하는 것으로, 미셸 푸코가 지식과 권력의 유착 관계를 통해 근대적 행정 즉 통치(government)의 발생을 추적한 연구들에 깔려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철학 특히 형이상학의 전제 속에서 행정의 의미를 탐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아감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서양세계에서의 인간의 삶과 그것에 대한 장치적 규제와 배치 간의 문제를 고고학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노력의 바탕이 되고 있다.

행정이 가능해지기 위한 존재론적 조건은 무엇인가? 행정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과 사물들을 배치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실천(praxis)적 행위라고 정의할 때 이와 같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 따르면 실천이란 어떤 사물의 본성(nature)이 네 종류의 근본 원인들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과정, 즉 사물 안에 고유하게 존재하던 잠재성(potentiality)이 현재화(actualization)되는 과정으로서 존재와 실천은 본질적으로 통합되어있다.³⁾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존

3)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질-실천과 잠재성-현재화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잠재성(potentiality), 가능성(possibility), 능력(capability) 등은 행정학 연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뜻에 대하여도 큰 틀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여기서 일치된 견해란 위의 용어들이 무엇인가의 현실화(actualization)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감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재해석하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한

재와 실천, 본질과 행동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유일신으로 상징되는 본질과 마찬가지로 지상세계에서의 신의 구원활동으로서의 실천 역시 기초가 없는(ungrounded), 무근원적(anarchic)적 활동으로 간주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오이코노미아로서의 행정은 독자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즉 어떤 근원에 묶여 미리 예정된 또는 규정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행동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또 다른 주제가 되는 공직에 대하여도 비슷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 개념의 형이상학적 구조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공직 개념에 대한 막스 베버의 정의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이유는 베버의 공직에 대한 역사, 제도적 정의가 현재 많은 정치, 행정학자들이 암묵적으로 전제 하는 정의일 뿐만 아니라 후에 보는 공직에 대한 아감벤의 주장의 혁신적 측면을 가장 잘 돋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는 그의 사후 나온 저서인 「경제와 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공직 개념의 성립을 비교·역사학적으로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베버는 근대적 의미의 공직은 관료가 사적 영역으로부터 분리되는 계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관료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행정수단으로부터 분리되고 국가가 이를 독점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관료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군인은 더 이상 자신의 사적인 무기를 지닐 수 없고, 노동자는 토지라는 생산수단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된 결과 만들어지며, 근대의 학자 역시 연구수단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추세는 수단을 독점하게 된 조직에 이들의 종속을 강화시킨다(Weber, 1978: 982-3). 그러나 베버가 수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 근대 관료제가 완성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관료제의 영역이 독자적 생활 질서를 구축한다는 사실이다. 즉, 근대로 들어오면서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등 독자적 생활 질서가 만들어지고 관료를 포함한 근

다. 이는 진정한 잠재성이란 비잠재성(impotentiality)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달리 말하면 존재론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잠재성의 실현이 아니라 이를 실현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그 때 비로소 잠재성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감벤은 잠재성은 그것이 단지 실현되느냐 아니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것으로 잠재성의 궁극적 진실은 비잠재성이라고 말하고 있다(1999: 183-4). 여기서 아감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현실화를 전제로 잠재성을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잠재성을 잠재성만으로 사유하라는 것이다. 잠재성을 현실화가 아닌 잠재성만으로 사유를 하게 되면 잠재성이란 잠재적 현실화(potential actualization)가 아니라 잠재적 잠재성(potential potentiality)이 되는 것이고 이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비잠재성이 현실화에 우선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본질과 실천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를 잠재성의 현실화로 해석하는 것은 범주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대의 개인들은 그 생활 질서 영역의 고유한 가치를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만드는, 자신이 헌신해야 할 사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베버는 주장하고 있다.

역사와 제도적 변화에 충실한 공직에 대한 베버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더러 현재 이루어지는 공직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베버에게는 공직 개념의 근원(arche)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스토아 철학자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에 의한 공직개념의 정립, 그리고 중세의 기독교 영향 아래에 있던 서양에서 성직자의 직무와 현대적 공직 개념의 사이에 존재했던 연관을 밝히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공직 개념의 근원을 추적하고 기독교의 전례와 의식에 기초하여 현대의 공직 개념의 형이상학적 핵심에 접근하려는 「Opus Dei」가 주는 의미는 진리추구에 있어서 철학과 역사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중시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아감벤은 현재의 공직 개념은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때에만 그 본질적 성격에 다가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아감벤이 보는 공직 개념의 핵심은 공직수행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그것을 수행하는 공직자 개인의 내적, 외적 특성과의 분리이다. 달리 말하면, 공직자 개인의 특성, 즉 그가 사악한 인간이건 도덕적 인간이건 상관없이, 그 공직자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임명된 사람이라면 그가 공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모두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직자의 원초적 모델은 성체성사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기독교 성직자들이 주인공이고 이들에 의해서 발전된 공직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와 실천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직 개념을 관통하고 있다고 아감벤은 주장한다. 이와 같은 아감벤의 주장을 행정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서양 권력의 토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1. 통치기계에 대한 계보학: 관리 개념의 신학적 전용

아감벤은 그의 작업을 통치성의 계보학에 대한 푸코의 연구의 연장선에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차이가 있다면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 기독교 성립기로 연장하고 인식론적으로 신학을 철학의 우군으로 받아들인 점이다. 「The Kingdom and Glory」는 기

독교 신학에서 받아들인 기능적으로는 연관되어 있지만 서로 배타적인 두 종류의 정치적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하나는 정치신학으로 유일신에 근거해 주권 권력의 초월성을 설정하며, 다른 하나는 오이코노미아(행정) 신학으로 신의 삶과 인간의 삶 모두에 대한 내재적 배치로 ... 착안된 ‘오이코노미아’라는 관념으로 앞의 초월성을 대체한다. 정치철학과 현대의 주권 이론은 첫 번째 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것이다. 반면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경제와 통치의 승리를 비롯해 사회생활의 다른 모든 측면까지 통제하기에 이른 현재의 생명정치는 두 번째 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것이다(Agamben, 2011: 1).

근대의 많은 정치학자, 법학자, 신학자, 역사학자들이 신적 지배와 세속적 지배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하는 정치신학의 탐구에 몰두했다면 아감벤은 통치를 중심으로 한 행정(경제)신학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탄생이후 수세기 동안 벌어졌던 삼위일체 논쟁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파생된 개념인 오이코노미아가 끼친 역할을 추적하면서 아감벤은 그의 통치기계에 대한 계보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2005)가 현대의 많은 정치적 개념은 세속화된 신학적 개념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정치신학 연구에 한 획을 그었다면 아감벤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행정적 개념, 예를 들어 공직, 의무, 절차, 의례 등이 세속화된 신학적 개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쪽 방향으로만 기울었던 권력의 무게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자 한다.

오이코노미아는 가정이라는 의미의 그리스 단어인 oikos에서 나온 어휘로 가정에 관한 관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감벤(2011: 18)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따라서 oikos를 도시 공동체의 집단적 정치를 말하는 polis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면서 오이코노미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이코노미아는 가정의 질서 있는 규칙의 기능과 결부된 행정적 행위, 기능적인 조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오이코노미아가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인식론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하는 하나의 실천(praxis)으로 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⁴⁾ 즉, 오이코

4) 푸코(2007) 역시 오이코노미아 개념을 통치와 관련하여 부각시킨바 있다. 하지만 푸코는 기독교가 그 후 통치에 끼친 영향력을 “사목권력(pastoral power)”과 관련하여 고찰하였기 때문에 오이코노미아의 폭 넓은 의미를 파악하는데 실패했다고 보인다. 특히 푸코는 오이코노미아에 대한 최선의 번역어로서 “행위(conduct)”를 제시하는데 이때의 행위는 누군가를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푸코는 Gregory Nazianzen의 “oikonomia psuchōn”을 영혼의 인도행위(conduct of souls)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노미아는 상황 적응적(contingent) 대응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그 적용대상은 가정, 군대, 수사학(rhetoric), 국가 등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신의 활동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감벤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오이코노미아 관련 언급을 상기시킨다.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오이코노미아는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신이 바울에게 내린 과업에 대한 수행을 단순히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과업이란 “지금은 완성 단계에 온 신의 의지에 숨어있는 구원의 신비를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Agamben, 2011: 23). 따라서 아감벤은 서신에 나타난 “신비의 오이코노미아(oikonomia of mystery)”에서의 오이코노미아는 그 어떤 신학적, 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 행정의 실천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의 “신비의 오이코노미아”는 삼위일체 논쟁 과정에서 “오이코노미아의 신비(mystery of oikonomia)”로 변화되는데, 아감벤은 이 과정에서 오이코노미아가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그것이 그 후 단순한 집행이나 관리라는 의미를 넘어선 철학적, 신학적 개념이 되는 것을 치밀한 문헌학적 자료에 대한 해석을 통해 증명해나가고 있다. 기독교의 교부들인 히폴리투스, 테르툴리아누스의 저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감벤은 오이코노미아가 영지주의자(gnosticist)들의 이원론과 단일신론자(monarchian)들의 유일신 사상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무기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존재적 의미로서가 아닌 관리, 행정적 의미로서의 오이코노미아 개념의 활용을 통해서 유일신의 통합과 세 위격의 분리된 영적 활동 사이의 모순 없는 화해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신은 본질의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유일하다. 그러나 그의 오이코노미아의 측면에서는, 즉 그가 자신의 신적인 가정과 신적인 삶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세 가지 위격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 위격은 지위(status), 힘(potestas), 본질(substantia)의 면에서는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론적 개념을 사용해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전제로 단지 형태의 면에서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삼위일체 자체는 그 어떤 본질에 대한 존재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본질의 내부적 배치에 대한 오이코노미아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오이코노미아의 신학적 전용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에서 끝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부들의 신학적 주장들의 논거를 더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필자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논문의 의도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특히 통치

(행정) 개념을 가능하게 한 형이상학적 전제 부분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통치의 형이상학적 전제: 본질과 실천의 역사적 구분과 통치 가능성의 등장

삼위일체론의 확립을 둘러싼 논쟁이 서양의 통치기계의 변화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영향은 신의 본질과 그의 실천을 단절시켜서 보기 시작한 점에 있다. 즉, 삼위일체론의 성립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그노시스적 존재라고 백안시해왔던 근원과 실재, 존재와 실천의 분열을 신의 섭리가 작용하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적 지배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는 통치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사람이나 사물을 주어진 환경적 특징에 따라서 특정한 형태로 배치하고 관리한다는 통치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은 통치가 어떤 본질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특징의 발현이 아니라 무근원적(anarchic)이라는 가정, 즉 통치는 어떤 근원(arche)을 갖고 있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발흥하고 전개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야만 통치기계의 또 다른 기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본질과 실천의 분열이라는 전제를 기초로 오이코노미아가 하나의 독자적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커다란 산 하나를 넘어야 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존재와 행위 간에 완벽한 결합을 기초로 본질과 실천 사이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이코노미아 패러다임은 하지만 이와 같은 결합을 해체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였는데 이 때 그리스도는 본질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실천행동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에 따르면, 부동의 동자로서의 신이 우주의 영역을 움직인다면 이는 신 자신의 본성(nature) 때문인 것으로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어떠한 신의 특별한 의지나 행동을 가정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이 세상의 변화란 것도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신의 본질이 근본원인들을 통해 현재화된 것일 뿐이다. 아감벤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 운명(fate)은 존재와 행동 간의 완벽한 통합에 기초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이코노미아 패러다임은 이러한 통합을 의문시하는 것으로, 신이 직접 세상을 통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와 행위, 본질과 실천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한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으로 다시 시선을 옮길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론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은 신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 신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아버지 신과 같이 근거 없는(ungrounded) 존재 즉 anarchos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⁵⁾ 이 논쟁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아버지 신의 말과 행동을 대표하고 지상에서의 구원의 오이코노미아를 책임진 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에게 근거하지 않은 anarchos이며 자신을 하나의 신비로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그의 행동이 완벽하게 그의 존재와 일치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로서의 신과는 정반대로 교부들에게 신의 행동은 그의 존재로부터 완전하게 단절되어 인식된다. 오이코노미아 패러다임에 따르면,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을 책임지는 신적인 실체는 신의 존재, 신의 초월성과 본질, 즉 신적 존재에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와 같은 실체는 신의 로고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 때 그리스도는 교부들에 따르면 그의 지상에서의 통치행위는 철저하게 무근원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는 아버지 신과 같은 anarchos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즉 존재와 실체의 분열과 신적 오이코노미아의 무근거성은 두 가지 면에서 통치 연구에 중요한 암시를 제공하여준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신적 존재와 실체의 분열에 기초한 신적 오이코노미아의 무근거성은 서양의 역사에서 무정부상태(anarchy)와 통치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감벤(2011: 64)의 표현에 따르면, “실체가 존재에 어떠한 기초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섭리적 통치 같은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통치-그리스도와 그의 오이코노미아를 패러다임으로 하는-자체도 직접적으로 근원이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신학은 정치-국가적 이라기보다는 “행정-관리적”인 학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행정신학이 오히려 정치신학을 시기적으로나 후에 미친 영향의 면에서 우선한다는 것이 아감벤이 「왕국과 영광」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다. “신학적-행정적 패러다임은 엄밀한 의미의 정치적 전통과 행정-통치적 전통 사이의 결정적인 연관을 추적하는 가운데 서양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Agamben, 2011: 66).

5) anarchos는 “arche”가 없는 존재이다. 여기서 arche는 그리스어로 “시작”, “기원”, “행동의 근원”의 뜻을 지니고 있다가 후에 “최고 권력”, “정부형태”, “권위” 등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3. 섭리적 기계로서의 통치

기독교의 역사와 근대적 의미의 통치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면 푸코의 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 1978년 강의인 「안전, 영토, 인구」를 펼쳐보면 된다. 강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푸코는 사목(pastorate)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 하나하나와 모두(omnes et singulatim)에 대한 목자적 보살핌이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형성하면서 근대적 통치 패러다임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다. 속죄의식과 고해성사 등의 종교적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들의 내면을 장악한 사목권력은 “행위에 대한 행위(conduct of conduct)”로 정의할 수 있는 통치의 초기적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감벤은 이와 같은 통치에 대한 푸코의 주장을 보완한다고 말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보았듯이 존재와 실천 간의 분열을 그대로 두고는 안정적인 통치기계의 작동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와 그것이 결과한 신적 존재와 실천 간의 분열은 초월적이고 비시간적인 신과 창조된 세계의 내재적 질서 사이의 목시적 조화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에서 초월적 신과 무관하게 벌어지는 세상에 대한 통치와 그것의 정당화는 진정으로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신학적 도구가 바로 섭리(providence)에 대한 다채로운 주장들이다.

아감벤이 포착하는 섭리의 실질적 기능은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양극적 기계(bipolar machine)”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섭리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성찰의 초점은 그 핵심에 있어서 신은 지상의 것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적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편적 원칙을 통한 간접적 지배를 한다는 사실로 모여진다. *ordinatio*라고 부르는 보편적, 초월적 질서는 *executio*라고 부를 수 있는, 천사들이 관장하는 특수하고 내재적인 질서에 의해서 현실화되어야 한다(Agamben, 2011: 111).⁶⁾ 따라서 이 두 질서는 세계에 대한 신적 통치기계의 양 기둥이 되는 것이다. 통치 활동이란 것은 초월적 의미에서는 신의 뜻에 의한 것(providential)이지만 동시에 보편적 원칙들이 현실에서 분배되고 실현된다는 의

6) *ordinatio*는 잘 지배되고 정돈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executio*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되는 것이다.

미에서는 운명적인(fateful) 것이다. 아감벤(2011: 129)식의 표현에 따르면 “통치기계는 쉬지 않는 신정론(theodicy)처럼 기능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섭리의 왕국이 운명의 통치를 기초하고 정당화한다. 이 때 운명의 통치는 섭리의 왕국이 세운 질서를 보장하고 그것을 작동가능하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 원리는 보편적 섭리를 말하고 운명은 특수한 섭리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 섭리는 통치의 양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통치가 가능한 것은 두 극단 사이의 “비구분성의 영역(zone of indistinction)”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치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일반적 혹은 특정적, 일차적 혹은 부차적, 목적 혹은 수단을 타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기능적 상관(correlation)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다”(Agamben, 2011: 122).

섭리 패러다임이 진정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노시스트의 주장처럼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한 극단을 현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지 않고서 그것을 한쪽 문으로는 분리시키고는 섭리라는 또 다른 문을 통해 항상 내재적 현실과 깊은 연관을 지닌 것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통치를 위해서는 왕국(kingdom)과 정부(government) 모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비록 삼위일체론에서 파생되는 존재와 실천의 분리가 신의 존재와 그에 의한 세상에서의 구원활동을 아포레틱한 관계로 만들면서 기독교 이상에 조금의 흠집을 댈지라도 섭리라는 신학적 도구의 출현은 신의 실천 활동도 궁극적으로 보편적 섭리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의 존재적 위상을 다시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아감벤은 통치활동의 존재론(ontology)은 “부차적 효과(collateral effect)에 기초하고 있다는 참신한 주장을 하고 있다. 위에서 “비구분성의 영역”이 암시하듯이 아감벤에 따르면 통치활동은 특수한 목적으로 추동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초월적 결정을 통해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통치활동은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엮임, 원치 않는 것과 기대하는 것 사이의 엮임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다. 아프로디시아의 알렉산데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교화 되는 “부차적 효과”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섭리적 행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또 자신을 위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계산된 것의 부차적 효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다면 이 세상의 일에 통치를 통해 개입한다는 것은 섭리작용이 비어두는 공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언급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

은 섭리적 작용이다. 그러나 누가 그 번개에 맞아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보편적 섭리와 특수한 섭리의 우연적 교차 또는 섭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섭리의 “부차적 효과”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오직 신학적 의미로서 지상에서의 무정부적 통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보편적 섭리와 특수한 섭리 사이의 “비구분성 영역”의 결정불가능성, 또는 섭리작용에 수반하는 “부차적 효과”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감벤의 통치에 대한 신학적 계보학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 의한 지상에서의 통치는 실천적 성격을 지닌 무근원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든 신의 존재를 초월적으로나마 전제하는 종교의 성격상 신의 존재와 실천은 무언가에 의해서 매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그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섭리의 주된 기능인 것이다. 또한 섭리는 보편섭리, 특수섭리, 부수적 효과 등으로 구분됨으로써 항상 우연성에 종속되는 현실적 통치가 가능해지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아감벤(2011: 141)의 진술은 섭리적 통치의 특징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다: “(섭리의) 두 수준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첫 번째 수준은 두 번째 수준의 기초를 세우고 이를 정당화하며 작동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반면 두 번째 수준은 신적 정신의 일반적 결정을 원인과 결과의 연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4.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기둥

비록 삼위일체 논리가 존재와 실천의 분열을 기초로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지상세계에서의 통치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섭리적 기제의 초월적 부분을 결코 지상세계의 내재성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 중세의 신학적 문헌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감벤이 도출한 결론이다. 따라서 지상세계의 신학적 통치는 섭리(providence)와 운명(fate), *ordinatio*와 *executio*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신은 일반적 섭리를 통해서 우주와 인간 세상에 초월적 질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질서를 효과적으로 만들면서 구원의 실천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 아들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이다. 신학적 통치 개념들이 서명(signature)이라는 인식론적 도구를 통해 지상에서의 통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아감벤의 주장에 따른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존재와 실천, 섭리와 운명은 주권적 권력과 행정적 통치와 상응하는 개념들이 된다. 즉, 고대 그리스 이후 인간의 역사는, 최소한 서양에서는 주권적 정치권

력과 행정적 통치권력 사이의 두 기둥이 필연적으로 필요했으며 서로가 서로를 가능하게 만드는 형태로 그 기둥들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이다.

신학적 논쟁으로부터 발전한 존재와 실천의 삼위일체적 분열과 그것의 섭리와 운명이라는 개념적 계기를 통한 재결합은 통치는 필연적으로 초월적 기둥과 내재적 기둥을 지닌 양극의 기계의 모습을 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 기둥 간의 결합 자체가 바로 오이코노미아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를 말하면, 오이코노미아는 유일신과 신의 세 가지 위격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신적 세계의 오이코노미아) 지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초월적 권력과 내재적 권력 사이의 관계 역시 규정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인간 세계의 오이코노미아). 따라서 우리는 단지 신적 권력의 예외적 작용과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의 힘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정치신학으로부터 다양한 존재들 사이의 관계를 통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오이코노미아신학 즉 행정(경제)신학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아감벤의 주장인 것이다.

법, 신학이론 부분에서 뛰어난 해석을 보이는 Zartaloudis(2010: 85)에 따르면, 통치는 “(나타나지만 사용되지 않는) 찬양된 초월적 권력과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효과적인) 내재적 실천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지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의 두 기둥을 명확히 한 다음 「The Kingdom and Glory」에서의 아감벤의 연구는 오이코노미아와 영광(glory), 즉 한편으로는 통치와 효과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과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과 전례에 기초한 권력 사이의 관계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The Kingdom and Glory」의 후반부를 차지하는 이 부분은 특히 “신의 무능은 세계를 정의롭게 통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주제⁷⁾ 즉 “비어있는 왕좌(empty throne)”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상당부분 할애되어 있다. 이 문제는 또한 군림(reign)과 통치(govern)와의 관계와도 관련되어 있다. 푸코(2007: 181)는 「안전, 영토, 인구」에서 “왕은 군림(reign)하지 통치(govern)하지는 않는다”라는 프랑스의 1848년 7월 혁명 당시 알돌프 티에르의

7) 이 부분은 기독교 교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쉽게 말하면, 신이 세계를 통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도 알아야 하는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아감벤은 제롬(Jerome)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말한다: “신의 위대함을 그가 모든 순간에 몇 마리의 모기가 태어나고 죽는지를 아는 데까지 확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우리는 이와 같은 사소한 것까지 섭리를 확대하여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하는 수준까지 신에 대한 아부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2011: 120). 결국 신은 지상에서의 일에 대하여 상당부분 무능한 존재로 남아있어야 된다(Siisiäinen, 2014).

말을 인용하였다. 아감벤(2011: 110)은 푸코를 다시 인용하면서 군림과 통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한다.⁸⁾ 그 견해는 위에서 본 오이코노미아의 논리를 군림과 통치에도 적용시키는 것으로, 무능한 군주와 효과적인 행정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권력의 두 기둥이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군림과 통치는 또 다른 변수인 “영광(glory)”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

5. 권력의 양 기둥을 연결하는 의례와 찬양

기본적으로 아감벤은 기독교 전례의식에서 나타나는 찬양과 찬송을 독재체제 국가이건 민주주의 국가이건 나타나는 대중적 환호(acclamation)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본다. 특히 이 부분에서 아감벤은 천사들의 역할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면서 그 역할을 현대 관료제에서의 관료들의 역할의 선구적 모델로 상정하고 있는 점이 행정학자의 눈길을 끈다. 아감벤은 아퀴나스의 주장을 근거로 천사들은 크게 보아 하느님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영원히 찬양만하는 천사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면서 수많은 행정적 일을 담당하는 천사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후자의 역할에서 근대에 등장하는 많은 행정적 개념의 계보학적 시원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아감벤(2011: 158)은 근대 행정의 전문용어들이 등장하기 오래 전부터 “계층제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와 사명, 임무 개념은 천사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아주 정교하게 체계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천사들의 구성, 역할과 근대 행정의 그것들 사이의 연관에 대한 연구는 계보학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통치에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왜 찬양, 환호를 통한 영광이 통치의 두 기둥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는가이다. 아감벤은 이 부분에서 현란할 정도로 다양한 전거와 예시를 통해 인간역사에서 찬양과 환호가 권

8) 아감벤은 군림과 통치를 분리하는 전통 역시 신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영지주의(Gnosticism)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신학에서는 두 개의 신을 인정했는데, 하나의 신은 초월적이고 작동하지 않는(inoperative) 신이고 다른 한 신은 지상에서의 통치에 적극 개입하는 신이다. 그래서 아감벤(2011: 77-8)은 “군림과 통치의 분리는 근대 정치에 대한 영지주의의 유산의 일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감벤은 basileus와 hehemonein의 구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때도 전자는 제 1의 신을 말하고 후자는 지상에서의 명령과 인도를 하는 제 2의 신이 되는 것이다. 특히 hegemon의 어원을 추적하면서 그것이 무리를 이끄는 동물, 마차의 운전자, 군 사령관, 자방 수령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력과 통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아감벤은 현대 정치에서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찬양과 환호를 기 드보르(Guy Debord)의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만발하는 매스 미디어의 역할에서 찾으면서 현대의 미디어는 주권적 정치권력, 즉 군림에 대한 찬양과 환호를 만들어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작동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아감벤(2011: 256)의 표현을 빌리면, “현대의 민주주의는 찬양, 즉 모든 상상을 넘어서 미디어에 의해서 확대되고 전파되는 환호의 효율성에 완전하게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감벤(2011: 227)의 프랑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에 대한 언급을 환기할 필요를 느낀다. 모스는 기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통치기계의 작동에 있어서 권력의 영광에 대한 찬양과 환호의 역할의 기본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모스는 기도라는 예를 사용하여 찬양화(glorification) 의식이 영광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영광은 다시 신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이는 에밀 뒤르켐이 말하듯이 “사람들이 숭배하지 않는다면 신은 죽을 것이다”라는 주장과도 맥이 닿는 주장이다. 이 말을 본 논문의 주제와 연관시켜 본다면, 군림하는 권력은 “비어있는 왕좌”에 다름 아닌 것으로 오직 찬양과 환호에 의해서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권력일지라도 무정부적 통치가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한 초월적, 상징적 존재로서의 권력이 지니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IV. 공직과 의무에 대한 고고학

1. 공직에 대한 신학적 이해

먼저 공직을 신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오해부터 풀면서 논의를 시작하자. 아감벤의 저작들에서 신학적 주장들을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신의 본성이나 신적인 법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신학적 주장들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현대의 통치가 행정적 관리라는 형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데에는 특정한 신학적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고 아감벤은 바로 이것을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학적 계보학은 우리가 현재 정치, 행정, 경제 등에서 사용하는 개념들 속에 존재하는 종교

적 흔적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오이코노미아, 질서, 섭리(보이지 않는 손)와 같은 사회과학에서 즐겨 사용하는 용어들과 신적인 왕국을 구성하는 전례, 의례, 찬송의 역할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아감벤은 강조한다.

아감벤은 「Ous Dei」에서 공직의 근원에 대한 탐구를 전례(liturgy)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한다. 아감벤이 중시하는 사례는 20세기 초에 신부 오도 카젤(Odo Casel)에 의해서 주도된 베네딕트 전례 운동이다(2013: 29-41). 이 운동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성체성사(Eucharist) 의식에 항상 존재하는 반복할 수 없는 예수의 희생의 신비와 관련하여 교회의 공적이고 제의적(cultic) 성격을 강조한 점이다. 이와 같은 카젤과 그의 운동에 의한 전례의 제의적 성격의 강조는 이 운동이 근대 사회의 개인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합리주의적 추세에 반대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개인의 내면적인 믿음, 신념 등에 있다는 생각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프로테스탄티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성체성사에 존재하는 예수의 희생을 부정하면서 예수의 구원행동 자체의 효과성, 즉 객관적 신비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현대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이나 예식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곤 했다. 그러나 이 예상은 빗나간 것이었다. 이는 프로테스탄티즘 자체에서도 의식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현대에서도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전례, 의식의 연장선에서 오도 카젤의 전례운동을 특별히 강조하는 아감벤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종교에서 제의적 의식 자체가 종교를 성립시킨다는, 달리 말하면 계속적인 신에 대한 제의적 전례가 없다면 신의 존재도 없어질 것이라고 아감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한다.

종교의 효과성은 전례에 있다는 위와 같은 주장 뒤로 아감벤은 「The Kingdom and Glory」에서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것은 세속적, 신적 권력의 초월적이고 주권적 힘은 전례를 구성하는 의식, 찬송, 환호를 통해서, 즉 “영광화(glorification)”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2013: 17). 이는 초월적이며 주권적 권력의 자리는 항상 “비어있는 왕좌”이며 실질적 권력은 지상에서의 구원행위인 오이코노미아에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것이다. 「Opus Dei」는 이 논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데, 신적 행정의 “움직이는 도구(animate instrument)”로서, 전례를 행하는 성직자(priest)로 연구의 초점을 돌리기 때문이다(2013: 25).

여기서 드는 우리의 의문은 기독교적 전례 그리고 성직가의 임무와 공직은 도대체

어떤 개념적 도구를 가지고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연결의 의문을 해결하는 열쇠는, 아감벤에 따르면, 성직자들의 전례상의 실천이 지닌 특별한 종류의 효과성이라고 볼 수 있다. 아감벤은 스스로 자주 쓰는 용어인 “작동성(operativity)”과 유사한 개념으로 “효과성(effectiveness)”를 강조하는데, 이때의 효과성은 물론 신학적 의미의 효과성, 즉 구원의 효과성을 의미한다. 아감벤에게 기독교적 전례 안에는 신비와 행정이 아포레틱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효과적인 구원행동의 전례(*opus operatum*)”와 “성직자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봉사(*opus operantis Ecclesiae*)”가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Agamben, 2013: 19). 아감벤은 성직자가 하는 전례를 “하느님의 사업(*opus dei*)”으로 보면서 그 자체로 효과성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아감벤(2013: xii)은 이와 같은 사실이 현대의 정치, 행정, 문화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숨겨진 열쇠이며 “신비로운 비밀”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여기서 아감벤의 공직 개념의 신학적 기원에 대한 핵심이 들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전례 행위 자체의 효과성을 그것을 실천하는 성직자의 자질, 사상, 의도 등과는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의 효과와 행위자 자신의 특성과의 단절이 바로 서양에서의 “공직 패러다임”의 근본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직 실천의 특별한 작동성(효과성)을 정의함으로써 교회는 그것의 효과성이 그 일을 하는 주체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그 일을 현실화시키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수단’으로서의 주체를 필요로 하는 인간 행동의 패러다임을 발명하였다(Agamben, 2013: 28).

궁극적으로 아감벤은 성직자의 직무를 모든 공직의 전형(*archetype*)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본 베버와는 달리 아감벤은 성직자의 직무와 공직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역사와 제도에 기초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철학, 특히 존재와 실천의 분열과 통합이라는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따라서 그의 공직이론이 역사적 증거나 문화적 사례 등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행정학자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라도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입론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직에 대한 아감벤의 신학적 연구는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 의미는 공직의 효과성은 그것이 하느님의 작업이든 아니면 주권적 주장이든 필연적으로 초월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한

그것이 그자체로 효과성을 지님으로 해서 초월성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기초하고 있음, 이것이 바로 신적, 주권적 초월성과 내재적 효과성 사이의 아포레틱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공직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실천적 패러다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행위 자체가 그것이 하느님(주권)의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공직자 자신의 윤리나 도덕 등은 그 자신의 행위의 효과성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또한 공직자 자신의 행위가 항상 효과적이라는 생각 뒤에는 그것을 보장하는 초월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아감벤의 주장에 따라서 입법 권력의 뒷받침 아래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전례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하느님 사업과 성직자, 국가사업과 공직자 사이의 관계는 같은 역사적 기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공직자들은 그들이 국가의 사업을 하고 있음이 의례적으로 인정받는 한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도, 양심 등과 전혀 관계없이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최고의 권력(하느님, 주권자)의 자리는 위에서 보았듯이 비어있다는 사실이다. 즉, 본질적으로 무근원적인 행정행위에 효과성이라는 성질을 덧씌우기 위해서는 권력을 찬양하는 영광화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결국 아감벤이 보기에는 서양에서의 인간은 전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역시 수많은 국가적 의식을 통해서 국가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공직자는 바로 그와 같은 의식을 집전하는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항상 효과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공직자들의 행위 자체의 효과성과 그들의 윤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 아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직윤리가 행위자를 배제하면서 동시에 포함하는 부정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때 배제되는 것은 공직자의 내면적 윤리성이고 포함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신 또는 주권의 움직이는 도구라는 사실이다.

2. 공직과 의무의 계보학

아감벤(2013: 67-69)은 공직의 계보학을 로마시대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키케로

의 공직 개념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한다. 키케로는 그리스어 *kathekon*을 *Officium*으로 번역하면서 로마시대의 공직개념을 정립한다. *kathekon*은 행동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하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고 그 행동이 행동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 역할에 적합한가와 그렇지 않은가와 관계가 있는 개념이다. 키케로의 *officia* 역시 행위자의 사회적 역할, 즉 그가 남편인지, 부인인지, 행정장관인지 일반시민인지, 후원자인지 후원받는 사람인지 하는 역할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officia*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가 가능했던 것은 로마사회가 공직 또는 역할 구조에 기초한 사회임을 말하는 것으로, 공직의 기능은 개인의 행동을 사회 안에서의 그 사람의 삶이 부여하는 역할에 부합되게끔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공직의 윤리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개인적 윤리와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단순히 초월적 근원의 움직이는 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공직에 부합하는 덕성(virtue)을 함양하는 것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즉, 행위자가 군인이라면 군인에게 필요한 덕성인 용기가, 판사라면 판사에게 요구되는 덕성인 정의가 행위자의 행위가 윤리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잣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아감벤(2013: 78-82)은 키케로의 공직 개념이 4세기 들면서 기독교화되고 있음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본고 있다. 즉, 이때부터 공직은 전례에 의해서 제공된 모델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직은 절대자의 지상에서의 구원행위를 완성하기 위한, 즉 그 행위에 효과성을 주기위한 과업의 달성의 측면에서 정의된다는 것이다. 공직은 성직자의 직무로 그 의미가 축소되는데, 이 때 성직자는 “하느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으로만 이해된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때부터 사회활동에 적합한 의무를 수행하는 역할들의 집합으로서의 키케로의 공직 개념이 약화되면서 사회 자체가 성직자들의 공직 수행을 통해 예수의 신비로운 몸이 되는 하나의 종교적 공동체로 변신하게 된다. 공직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priesthood)이 하는 공직 자체가 예수의 구원활동이 효과성을 획득하는 전례를 통해 사회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감벤(2013: 81)은 전례적인 공직 개념 속에서 하나의 순환논리를 발견하면서 이 논리에서 의무(duty)가 출현한다고 보고 있다: “공직(officium)은 성직자의 존재가 그의 실천을 규정하며 그의 실천이 동시에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존재와 실천 간에 순환관계를 구성한다. 공직 안에서 존재론과 실천론은 결정 불가능한 것이 된다. 성직자는

성직자여야만 하며 성직자여야만 하는 것이 성직자이다(the priest has to be what he is and is what he has to be). 아마도 성직자의 실천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공직이 서양의 존재론에 미친 가장 결정적인 양향은 존재를 당위(having to be)로 변환시키면서 의무를 윤리의 근본적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다”(Agamben, 2013: 87).

아감벤의 이와 같은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아감벤은 존재 자체가 당위로 변하는 과정에서 서양에서 의무가 윤리를 구성하는 핵심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주장한다. 즉, 성직자의 존재는 그가 해야만 하는 일에 종속되어있고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이 성직자의 존재 자체를 규정한다. 이를 현대의 공직자에게 적용하면 공직자는 따로 자신의 존재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공직자가 독립적으로 윤리나 도덕을 생각할 여지는 전혀 없어지고 의무의 수행 자체가 윤리와 존재 모두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상되다시피 아감벤의 존재와 실천 간의 결정 불가능한 관계와 궁극적 분리는 칸트에 대한 논의에서 절정에 이른다. 아감벤(2013: 111)에 따르면 의무 혹은 공직 패러다임의 “가장 극단적이고 아포레틱한 공식화”를 칸트의 윤리학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감벤에 따르면, 칸트가 덕성(virtue) 자체를 의무로 규정하면서 윤리적 영역에 남아있던 존재의 마지막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다. “덕성의 의무”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아감벤(2013: 113)의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효과성의 원천으로 “그리스도”를 “법”으로 대체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존재 또는 그의 경향, 잠재성 등과 상관없이 윤리를 의지의 순순한 명령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비록 의무를 도덕적 법에 대한 존중의 감정에 기초시키고 있지만 아감벤의 칸트는 이와 같은 감정은 존재론적 기반이 전혀 없는 것이며 사실은 의지의 법에 대한 종속을 인정하는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윤리에 있어서 감각적 경향 등은 이성 에 기초한 합리적 자기결정성에 의해서 극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감벤은 칸트에 오면서 존재와 당위(having-to-be)의 분리는 결정적 순간에 도달하는 것이다. 즉 칸트에 오면 존재는 당위로 환원되는 것은 물론 현대사회에서의 존재는 오직 “작동성(operativity)” 또는 “효과성(effectiveness)”으로만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아감벤의 존재론에 기초한 역사, 철학적 주장들을 행정학자의 관점에서 정리해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경험주의와 실증주의 철학과 방법론에 너무 진하게 물들여져있는 학문인 행정학에서 아감벤의 생각들을 이해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비판적으로 소화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철학, 역사학, 정치학, 신학 등에 미치는 그의 지대한 영향력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에 대한 비판적 작업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 권력을 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 행정학에서 그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아감벤이 통치 그리고 공직 개념을 신학에 기초한 고고학, 계보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점에 대하여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비판적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제도와 역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아감벤의 고고학적 탐구는 지나칠 정도로 모든 연구 역량을 형이상학적 근원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안 헌터(2017a; 2017b)는 최근의 두 논문에서 행정과 공직과 관련된 아감벤의 모든 주장들은 본질적으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통치와 공직의 개념들은 존재가 존재자를 통해 자신을 들어내 보이면서 동시에 은폐하는 과정을 역사적 사실에 대입시키면서 등장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는 아감벤의 역사적 방법론이 궁극적으로는 하이데거 존재 철학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들을 조망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은 호모 사케를 시리즈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성이 의심되는 비판이다. 미셸 딘(2017)이 적절하게 비판하듯이 이안 헌터의 주장은 주권과 통치 권력의 역사적 구성과 그 합리성, 그리고 그것의 세속화를 총체적 시각에서 보는 아감벤의 연구들을 편협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인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정치의 실종이 우파학자나 좌파학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우파의 대표학자인 칼 슈미트는 자유민주주의의 “영원한 심의(external deliberation)”가 정치의 본래적 기능인 결정(decision)을 무력화 시킬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에게는 법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하는 주권이 “예외상태” 즉 신학적 의미의 기적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한나 아렌트 역시 정치의 실종을 한탄하는데 그녀에게 현대는 그리스의 폴리스를 가능하게 하였던 인간의 정치적 활동들이 19세기 사회(the social)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국가적 수준의 가정관리” 즉 행정에 의해서 잠식되는 위기의 시대였다. 미셸 푸코 역시 주권적 권력이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규율권력과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권력에 의해 압도되는 현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아감벤의 호모사케르 시리즈의 두 번째 파트의 4번으로 등장하는 「The Kingdom and Glory」와 5번인 「Opus Dei」는 서양역사에서 본질과 실천, 왕국과 정부, 정치와 행정은 결코 어떤 하나가 하나를 배척하는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문헌학, 계보학 등의 풍부한 자료를 통해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그의 업적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행정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을 채택하여 서양 권력기계의 양 기동과 그것의 가능성의 조건으로서의 영광, 찬양 등에 우리의 관심이 돌아가게 한 점일 것이다. 또한 현재의 행정 권력의 무근원성, 무정부성을 신학적 고증을 통해 밝힘으로써 행정 권력의 실존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한 점은 그의 커다란 공헌이다.

참고문헌

- Agamben, Giorgio.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1999). *Potentialities: Collected Essays in Philosophy*, Daniel Heller-Roazen (e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State of Excep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The Kingdom and Glory: For a Theological Genealogy of Economy and Governmen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3). *Opus Dei: An Archaeology of Du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3a). *The Highest Poverty: Monastic Rules and Form-of-Lif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5). *The Use of Bod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enjamin, Walter. (2003) “On the Concept of History,” In *Walter Benjamin: Selected Work*, ed. Marcus Bullock and Michael W. Jennings, vol. 4, 1938-1940.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Dean, Mitchell. (2017). “Office and Agamben’s genealogy of economy and government.”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and Political Sociology*, 4(2): 200-222.
- Foucault, Michel.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 977-78. New York: Palgrave.
- Hunter, Ian. (2017a). "Giorgio Agamben's Form of Life," *Politics, Religion & Ideology*, 18(2): 135-156.
- _____. (2017b). "Giorgio Agamben's genealogy of offic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and Political Sociology*, 4(2): 166-199.
- Schmitt, Carl. (2005). *Political Theology: Four Chapters 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isiäinen, Lauri. (2014). "The Shepherd Meets the Divine Economy: Foucault, Agamben, and the Christian Genealogy of Governance." *JCRT*, 14(1): 53-69.
-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Vol. I, II. ed. and trans. G. Roth and C. W. Mil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Zartaloudis, Thanos. (2010). *Giorgio Agamben: Power, Law and the Uses of Criticism: Power, Law and the Uses of Criticism*. London: Routledge.